



왜 1센트입니까?

토론토 시는 우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다른 어느 정부보다도 더 많이 제공합니다. 경찰, 소방 서비스와 토론토 교통공사 및 도로. 공원, 보호소, 공공 주택, 재활용 프로그램, 여가활동 설비, 도서관, 그 외에도 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토론토 시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 활기찬 경제를 유지하고 주민들이 거주하며, 일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것 사이에는 중대한 재원 상의 간극이 있습니다. 토론토 시의 기초시설을 포함하여 이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과 사용 가능한 기금의 차이가 1.1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2005년에 캐나다 컨퍼런스보드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기초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비롯하여 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기획들에 대한 투자가 심각할 정도로 지체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현 **연방부가세**에서 지금 **1센트를!** 우리 도시가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늘어나는 인구에 맞추어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토 시는, 또한 캐나다 내의 다른 도시들 역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증가하는 확실하고 항시적인 재원으로서, 현 연방부가세에서 1센트를 **돌려주도록** 연방 정부에 요청합니다. 우리 도시에 대한 투자는 캐나다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토론토를 비롯한 도시들은 캐나다의 경제를 튼튼하게 하며 일터를 제공하고 투자를 유치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극도로 제한된 세입원으로 인해 도시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경제가 성장하면 같이 늘어나는 다음과 같은 세입원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 판매세
- 소득세
- 기업세
- 자원세
- 수입 관세

시 정부에는 이러한 세입원들이 없고, 시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재산세 세입 증가는 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주 정부가 부담했던 사회복지 사업 등을 시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를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의

유지와 새로운 도로의 건설 및 대중 교통 수단의 개선과 같은 것들을 시에서는 모두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 정부가 지불했던 사회복지 사업 비용을 시가 맡는 것은 토론토 시 및 납세자 주민들에게 불공정할 뿐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1 센트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매 1 달러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연방부과세로 6 센트를 지불합니다. 본 운동이 요구하는 것은 이 6 센트에서 1 센트입니다. 예를 들어, 1 불짜리 물건을 사게되면 연방부과세로 6 센트를 납부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이 6 센트 중 1 센트를 캐나다 도시에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2 불을 썼을 때 연방부과세는 12 센트이며, 이 경우 캐나다 도시에 2 센트를 돌려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현 연방부가세에서 1센트는 무슨 이유입니까?

현 연방부가세에서 1센트를 나누어 받으면, 1년에 약 4억 천만 달러가 우리 도시에 제공됩니다. 이러한 항시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을 사용하여, 도로를 포장하고 교통 수단을 기획하며 더욱 청결하고 더 넓은 녹지를 갖춘 도시를 만들 수 있고, 여가활동 센터들 및 공원들과 시의 다른 설비들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 연방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연방정부에서 말했습니다.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현존의 연방부가세에서 1센트를 우리 도시들의 개선을 위해 투자할 여유가 있다고, 토론토 시를 비롯한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은 믿습니다.

현 연방부가세에서 1센트면 충분합니까?

토론토를 포함한 캐나다의 도시들은, 경제 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안정적이고 항시적인 재원을 요청합니다. 현 연방부가세가 그런 재원입니다. 다른 기관들에서도 그와 같이 인정합니다!

캐나다의 도시들이 자금의 부족을 겪고 있는 반면에 담당해야 할 사업은 지나칠 정도로 많으므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 함께 늘어나는 항시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고 상업회의소나 실업협회와 같은 기관들에서 여러 해에 걸쳐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한 기관들 중의 하나가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입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가능한 사명: 캐나다의 성공적인 도시들



시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며, 재산세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경찰 업무, 토론토 교통공사, 소방서, 보호소 및 공공 주택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삼림 관리, 공원, 여가 활동, 교통, 쓰레기 처리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는 토론토 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2006년에 주민들이 납부한 재산세의 평균 금액은 2,093 달러(하루에 5달러 74센트)였습니다. 2006년에 재산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처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재원 상의 문제들을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토론토와 다른 주요 도시들은 다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1.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세율의 공유: 시 인구 증가에 맞추어 시에서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예로서 현 연방부가세에서 1센트.
2. 시 가용 재원에 부합하는 역할과 책임의 재정립: 토론토의 경우, 과거에 주 정부 소관이었으나 현재 토론토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 정부가 환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정부에서 운영하고 비용을 지불하던 사업들에 토론토 시가 7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3. 국가적 교통 전략: 캐나다는 G-8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적 교통 전략을 갖추지 않은 나라입니다. 고속 교통편 같이 큰 규모의 시설을 기획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항시적이고 장기적인 교통 기금이 필요합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서 이미 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서는 시에 실제 얼마간의 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계속하여 튼튼한 경제를 유지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캐나다 도시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사이에는 중대한 재정 상의 간극이 있습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지원하는 기금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해 그 해 땀질 식 사업은 “구걸하는” 풀의 캐나다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많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토론토는 성장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새로운 기초시설에 계속 비용을 지불하는 한편, 시 프로그램과 도로 수리 중에서는 한 가지 만을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연방 정부에서는 휘발유세의 점차적인 공유 (2006년에 1.5센트, 2007-08년에 2센트) 및 시 구입 분에 대한 연방부가세 환불 실시를 통하여 도시들에 교통을 위한 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교통, 구급차 서비스 및 보건에 대한 주 정부의 기여분을 늘렸고, 주 휘발유세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으며, 이전에 주에서 운영하고 비용을 부담하였던 사업들로 인해, 해마다 시 예산 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제한된 기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토론토 시와 온타리오 주는 이전에 주에서 운영하고 비용을 부담하였던 사업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재산세 납세자들과 토론토 시는 계속하여 그 비용들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 연방부가세에서 1센트를 토론토 시가 받는 것에 대해 연방 정부에서 이미 거절을 했습니다.
다른 대답을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방 정부는 캐나다의 최대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가스세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던 적절한 공공정책 결정의 사실을 연방정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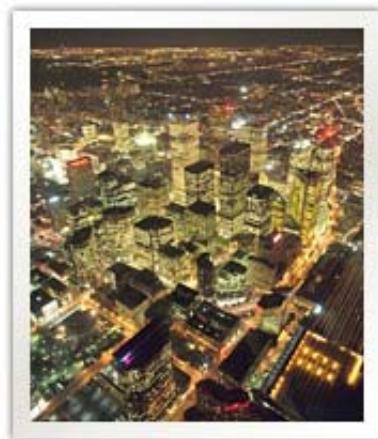
80 퍼센트에 가까운 캐나다 인구가, 캐나다의 최대 도시인 토론토와 다른 도시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는 캐나다의 경제를 이끄는 엔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연방 정부 및 주 정부가 수 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을 더 확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시가 필요한 서비스들을 유지하기 위해 돌려받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방 정부가 이번의 청원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더욱 본 운동에 중요성을 더합니다. 만약 연방 선거가 가까운 시일 안에 있게 되면, 토론토를 비롯한 모든 도시의 주민들과 사업체들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후보자들에게 전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토론토 시는 캐나다 최대 도시로서 성장하며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토론토 시의 자체적 필요를 위한 재정이 토론토 시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론토 시가 지불하고 있는 종류의 비용을 감당하도록 재산세가 고안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재산세율을 1페센트 늘린다 하여도 시가 거둘 수 있는 세액은 고작 천 팔백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왜냐구요? 재산세라는 것은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부동산 시세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소비자로서 개인의 지불 능력입니다. 도시들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늘어나는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의 소득세와 판매세는 경제가 성장하면 세액도 늘어납니다. 지난 수 년간, 토론토에서 거두어들인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판매세는 해마다 1억 달러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시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판매세와는 달리, 지난 수 년간 토론토 시의 세입원은 아주 조금 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론토 시는 지역세와 부과금에 **더하여** 경제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수입원이 있는 미국 및 유럽의 도시들과 사업 및 관광 분야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도시가 되려면 대 도시로서 요구되는 기초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된 세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토론토 시를 운영할 비용의 원천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토론토 시 법령이, 토론토 시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힘을 토론토 시에 부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 법령은 보다 낮고 더욱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세금의 부과와 관련된 부분이 약간 들어 있으나, 과거에 주 정부가 지불하던 사업들을

영구적으로 떠맡을 수 있는 액수나, 시가 당면하고 있는, 기초시설과 운영 비용에 드는 대략 1.1조 달러의 차액은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토론토 시가 직면하고 있는 세입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납부하는 세금들인 주 정부세, 연방 정부세와 재산세에서 매 1달러 당 다만 8센트만이, 거주하는 도시의 뜻으로 쓰입니다. 이 8센트를 가지고 경찰, 교통, 소방, 응급 서비스, 도로, 공원, 여가 활동 시설,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과 같은 시 필수 사업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 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이러한 재정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의 수입이 연방 및 주 정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토론토는 캐나다로 이주하는 이민자들의 첫번 째 정착지가 되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캐나다의 경제 활동 중심지이며, 전 세계에서 캐나다로 오는 관광객들이 목적지로 삼는 곳입니다. 시 인구는 약 260만 명이지만, 토론토 거주자가 아니면서도 일하기 위해서나 여행 차 토론토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합하면, 하루 300만 명 이상이 기초시설과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가 필요한 부분을 채무를 늘려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가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비용이, 재산세 세입에서 지출하는 두 번 째로 큰 뜻입니다. 첫 번째는 경찰 업무 비용입니다. 사실상, 2007년도 시예산의 37 퍼센트를 채무에 관련된 재정에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가 거두어 들이는 재산세 1 달러 당 약 13 센트를 시가 빌린 돈의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쓴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의 증가는 재산세 납세자들이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7년도에 토론토 시의 총 채무액수는 2.4 조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토 시의 자본 지출 예산안을 살펴 보십시오.

기초시설 비용으로 시의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들은 연별 적자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예비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장비의 구입이 필요하거나, 긴급 상황에 소용되는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합니다.



토론토 시는 기초시설을 유지하는 한편, 전에 주 정부가 맡았으나 지금은 시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오는 압박을 덜기 위해, 이제까지 예비비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비비의 사용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2007년도 자본 지출 예산안의 11퍼센트가 예비비에서 지불될 것입니다. 이것은 토론토 보유 예비비가 주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비율이며, 4조 달러 이상이 모자라는 재원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시 예비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면, 시의 5년간 예산안을 조회해 보십시오.

기초시설 비용을 지불하도록 다른 비용들을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토론토가 통합시로 된 이래로, 시에서는 1,476개의 전일 근무직을 없앴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주 정부 사업을 운영할 직원이 또한 필요합니다. 주 정부에서는 특정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수준의 서비스를 위임했습니다. 이것 또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가하면, 시 인구의 증가에 따라 경찰, 보건을 비롯하여 토론토교통공사에 직책을 늘려 왔습니다.

본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지지 의사를 알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 웹터 www.onecentnow.ca를 찾아서 청원서에 서명을 하십시오.
- 지역구 국회의원과 수상, 또는 야당 당수들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현 연방부가세에서 1센트를 토론토 시에 돌려줄 것을 지지한다고 당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알리십시오.
- 차에 붙이는 스티커를 주문하시고 핀을 착용하며 우편함에 붙이는 스티커를 요청하십시오.
- 올해에 연방 선거가 있게 되면, “현 연방부가세에서 1센트를!”에 대한 지원을 모든 후보자들에게 요청하십시오.

본 운동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본 운동의 예산은 약 15만 달러입니다. 모든 비용이 인쇄와 제작에 사용됩니다.

“연방부가세에서 1센트를” 운동을 지지하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토론토 시는 전혀 이러한 운동을 벌일 필요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의사가 주 정부와 연방 정부에 직접 그리고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사업체들이 본 운동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청원서나 국회에 편지 쓰기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자신들의 도시를 지원한다는 것을 본 운동이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토론토 시는 주민들과 사업체에서 지금 1센트를! 운동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리도록, 집에 붙일 스티커나 옷에 꽃을 핀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료 사용할 수 있는 도시 광고 공간들에, 이 운동을 널리 알리는 광고들을 게재할 것입니다.